

News / Issue

-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
 - 은산분리 완화(지분보유한도 4% → 50%, 재벌제외), 최저자본금 500억원,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
 - 연내 1~2개 예비인가, 추후 본인가 계획

Implication

- 우리가 예상했던(4/6 한국 인터넷전문은행 Zero Sum or Plus sum) 수준(최저자본금 기준 현행 1,000억원 유지, 은산분리 20~30% 수준) 대비 완화 정도는 높음
- 시범인가 추진전략 등 정부의 육성 의지 재확인. 다만 법률개정 및 세부안 마련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듯
- 중금리 신용대출 위주의 인터넷전문은행 업무영역은 기존 은행지주와 중첩은 크지 않으나, 수신유치 경쟁심화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부담, 수수료율 추가인하 압박 등은 불가피
-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채널의 효율화(지점의 전문화 및 고도화) 요구가 거세질 것. 인력조정 역시 병행될 가능성
-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업무영역 확장의 기회. 은행고객의 증권화 등 업무연계가 중요할 전망
- 은행권에서는 정부와의 호흡이 중요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증권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의 행보가 적극적
- ICT업계에서는 다음카카오 등이 유력한 후보군이 될 것으로 예상. 기존금융권과 제휴 가능성 높을 듯

Call

- 1 은행: 중장기 위협요인, 증권: 기회요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주요 내용

	인터넷 전문은행	기존은행
산업자본 지분한도	50%(재벌제외)	4%
최소자본금	500억원	1,000억원 (시중은행)
업무범위	동일(여수신,카드,방카,외환 등)	

자료: 금융위원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N.R. (Not Rated)	20% 이상 기대 -20% ~ 20% 기대 -20% 이하 기대 등급보류	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에서 3단계 (Buy / Hold / Sell)로 변경